

파워 성령님

성경말씀: 행1:1-8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돈, 차, 집, 자식, 여자, 직장, 음식, 여행 등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파워이다. ★★★ 정치, 지능, 재물, 근력, 인맥 파워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파워(Power)이다.
파워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파워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나의 근 2주간 경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데 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파워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그분의 파워로 해야 한다.
그래서 파워(Power)를 능력이라고도 하고 권능이라고도 한다. 마귀와 아담의 타락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의 권능으로 세상과 싸우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8절 이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매장,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눅24:45-49,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높은 것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고 하심
그것은 바로 요한의 침례와 대조가 되는 성령님의 침례 역사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임하면이 아니라 임하신 후에이다.'
오순절 날에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강림,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
성령님 자체가 권능이다. 교회가 태동되었다.
그 이후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롬8:9, 14).

잘못된 파워

- 육체적 파워가 아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다.
가자의 성문을 열어 날랐다. 그러나 여기의 파워는 살과 피와 뼈와 힘줄과 관련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는 무력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사람이 무력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
는 오히려 흥왕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력을 행사하자 가장 무기력한 종교가 되고 말았다.
- 말의 능력: 말의 힘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 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천 냥 빛을 갚기도 한다.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준다. 그런데 말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로 선포하지 않았다(고전2:4).
- 은사의 능력: 특히 오순절주의자들이 늘 추구하는 것이 은사 권능 파워이다.
미국의 TV 부흥사들, 국내에도 빈야드, 펜사콜라, 신사도 운동(손기철), 오순절 순복음 은사주의
방언, 기적, 병 고침, 안수, 입신 등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다. ★★★
행2:1-4 설명, 바람 소리, 불의 혀, 성령님이 하계 하시는 대로 타언어를 함
이들이 병을 고쳤는가? Yes, 다 고쳤는가? No
이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가? Yes, 다 살렸는가? No
타언어를 말했는가? Yes, 다 말했는가? No,
죽을 때까지 매일 이런 은사가 나타났는가? No. 은사는 목적이 있다. 그 뒤에는 멈춘다.
이들이 이런 파워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Never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때에 그들을 통해 파워를 제공하십니다.
이런 것을 달라고 밤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일이고, 불신의 일이다.

성령님의 파워

이것은 영적인 파워이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이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파워이다. 죽어 있던 영이 사는 체험이다. ★★★
따라서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표가 아니다. 은행 발행 수표이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보증 수표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돈, 재물, 학식, 명예, 권세로 살 수 없다.
 요1:12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전구와 전기 줄이 다 연결되어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
 성령님의 권능이 바로 전기와 같다. 이게 흘러야 그리스도인이다. ★★★
 전기가 약하게 흐르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핸드폰 충전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 파워를 받아야 나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파워를 받아야 교회가 교회답게 행할 수 있다.

성령님의 파워 어떻게 받는가?

밤새 기도하면 받는가? No. 행1:14절을 오해하면 안 된다. 공동생활, 집단생활 No! 변천기 ★★★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명령을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 ★★★
 마22:23-32(29절), 감정이 아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먼저 성령님의 파워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 안의 멤버들의 파워 충전 상태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 시작이 미약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 단숨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된다. ★★★

성령님의 파워로 하는 일

성령님의 파워의 목적은 귀신 쫓고 부자 되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나, 내 교회를 위한 증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증인
 증인은 사도행전에 29회 나온다(동사 명사).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선 사람이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재산, 학식, 언변, 경험 등이 소용이 없다. 판사는 의견 혹은 사상에 관심이 없다.
 순교자라는 단어와 증인은 같은 어원이다. 증언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 있음을 증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전도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으로 인해 할 말이 있어야 한다. ★★★
 이것은 파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기는 공통 현상이다.
 모두 구원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자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겁쟁이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인해 희생과 핍박을 즐겁게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세상을 보는 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잠시 지낼 장소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기 시작한다.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부부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교회 모임에 오는 것이 달라진다.
 진리를 추구하는 열심이 뜨겁게 된다.

이런 파워는 이 세상에는 생기지 않는다. 이 세상 밖에서 와야 한다. ★★★
 이런 경험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결론

당신은 이런 파워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엡3:20-21 ★★★
 이번 주에는 구원바로알기 CD, 책자, 빛 등을 한 번 나누어 주자. ★★★